

보도시점 2025. 4. 3.(목) 16:00 배포 2025. 4. 3.(목) 16:00

과수산업의 유통 혁신을 이끈 원로 선구자로부터 농어업의 미래 희망을 찾다

- 윤익로 전(前)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희망을 심어주는 사과농업의 요령”을 주제로 농어업위에서 특강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3일(목) 윤익로 전(前)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을 초빙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사과농업의 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이어 과수산업을 포함한 농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올해 92세를 맞은 윤익로 회장은 60여 년간 과수 농업에 헌신한 원로 농업인으로 사과의 품질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실천하면서 기술농업을 선도해 왔다. 1992년에는 30억 규모의 과일선별포장센터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 산지유통공판장을 구축함으로써 과수 유통의 혁신을 이끌었다.

이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8년간 역임하며 전국 공동 브랜드 ‘썬플러스(Sunplus)’를 출범시켜 고품질 농산물 유통 기반을 확립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명예의 전당 후보자로도 추천된 바 있다.

윤익로 회장은 특강에서 “기후변화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과 K-APPLE 브랜드 육성 및 규격기준 체계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기계화가 핵심”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과수 농업 분야의 과학기술 접목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윤익로 회장님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기술농업으로 발전시킨 살아 있는 역사이자 원로이시다”며, “농어업위는 회장님의 평생의 꿈과 실천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농어업위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포함하여 폭넓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기획팀	책임자	팀 장	송지숙 (02-6260-1211)
		담당자	주무관	김미소 (02-6260-1214)

